

신안교통재단 전국 최초 출범... ‘여객선 공영제’ 첫발

군 100% 출연 전문성 책임 강화
남부권역 항로·선박 3척 인수
잡은 지연 고장 등 불편 잇따라
중부·북부권 정주여건 개선 목표

섬으로 형성된 전라남도 신안군에 공영선박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신안교통재단이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신의면 동리선착장에서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신안교통재단’을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은 신안군의 남부권역(하의, 신

의, 장산) 항로가 공영화됨을 기념해 신의면 동리선착장에서 취항식에 함께 열렸다.

(재)신안교통재단은 신안군이 100%를 출연했다.

그동안 민간선사에서는 수익성을 이유로 운항시간 지연, 고장·검사·점검 등의 사유로 잡은 결항과 시설의 질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됐다.

또 군 소유의 공용선박을 ‘신안군도선 운영협의회’에 위탁 운영했으나 전문성, 책임감, 안전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돼 해상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과 편리성을 높인 해상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

다.

신안군은 지난 2022년 재단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3월21일 설립 등기를 마쳐 출범식을 갖게 됐다.

교통재단 출범식과 함께 가진 취항식은 그동안 남신안농협에서 운영하던 남부권역 항로를 군에서 인수하면서 이뤄졌다.

신안군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운항의 지속을 담보할 수 없고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을 우려해 남신안농협에서 운영하던 3척을 인수해 공영화했다. 군에서 인수한 3척의 선박은 천사 1, 2, 3호로 선명을 변경했다.

천사1호는 364톤급, 천사2호는 486톤급, 천사 3호는 720톤급이다. 총여객 1027명, 차량 119대를 수송할 수 있는 규모로 천사1·3호는 하의~신의·장산~목포 항로를, 천사2호는 안좌에서 장산·신의·하의 간을 신설 운항한다.

박종원 신안교통재단 초대 이사장은 “섬에서의 교통은 그 자체로 인권이자 복지이며 주민들의 삶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나 마찬가지다”며 “남부권 항로 여객선 공영제를 시작으로 중부·북부권 등 신안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완도군, 통합 인허가 시스템 도입
개발행위허가 민원 온라인 신청

전라남도 완도군은 6월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IPSS)을 도입·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IPSS)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고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군청을 방문해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시스템이 운영되면 365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인허가 진행 상황 실시간 조회, 허가증 발급 및 준공검사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군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내 토목 및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 및 행정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군민들에게 온라인 신청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단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을 위해 방문을 통한 서류 접수 방식으로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는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자료 전산 등재를 통한 간편한 이력 관리로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온라인 상담을 통한 민원 응대 시간 감소로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완도=정태영 기자

해남군, 난임 극복 지원 확대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등

전라남도 해남군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극복 지원을 확대한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영구 피임 시술을 했으나 임신·출산을 위해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군민을 위해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55세 이하 남성 또는 49세 이하 여성이다.

도내 의료기관에서 복원 시술 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관은 최대 50만원, 난관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은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고 있는 여성의 미래 임신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30~40세 여성 또는 조기폐경 가능성 있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채취 시술비 및 난자 동결 비용을 포함한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이밖에 난임 진단비 지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등 임신·출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보건소 출산장려팀(061-531-378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양파 노균병 방제 철저 당부
강진군 “지속적 포장 예찰 중요”

전라남도 강진군이 최근 잡은 강우가 이어짐에 따라 양파 재배농가에 노균병과 잎마름병 등 곰팡이 병 방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1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구비대 막바지에 들어선 양파에서 노균병이나 잎마름병 등 곰팡이 병 발생이 우려되며 자칫 방제가 소홀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곰팡이 병은 습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쉽게 확산된다. 최근 강우가 잦고 일교차가 커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감염되면 잎이 누렇게 변색되고 빠르게 확산, 수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병 발생 초기에 적용 약제 방제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기온이 오르면 일주일 간격으로 꼼꼼히 살포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최영아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생육 막바지까지 지속적인 포장 예찰과 방제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신안군, 감염병 예방 캠페인
역학조사 등 확산 방지 최선

전라남도 신안군이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에서 진행 중인 꽃, 수산물 등 축제장을 찾아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라벤더 축제장을 시작으로 진행중인 캠페인은 ‘올바른 손씻기로 감염병을 예방합시다’를 주제로 감염병 예방의 기본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축제 및 다양한 행사장뿐만 아니라 연중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지속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5월부터 9월까지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철저한 보고 및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무안군 복지기동대 직원들이 지난 16일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무안읍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주거환경 봉사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복지기동대가 지난 16일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용선 복지기동대장을 비롯한 기동대원 10명이 참여했으며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기동대원들은 집 안팎에 방치된 생활

집기와 각종 쓰레기를 수거 정리하고 실내 청소를 통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마련했다.

이후에는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과 협업하여 내부 정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용선 복지기동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웃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

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와 무안읍장은 “복지기동대원들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 취약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일상 속 불편과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신속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완도군, 봄철 산불 발생 ‘0’ 전 달성

선제 대응·군민 적극 협조 성과

전라남도 완도군이 지난해 가을철부터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아 ‘산불 제로화’를 달성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불리한 환경 속에서 선제 대응, 촘촘한 현장 감시 체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낸 성과다.

21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4월 말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산불 취약

지에 고정 배치하여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체계를 갖췄으며, 헬기를 운영해 공중 산불 감시 활동도 전개했다.

각 읍면에서는 주기적으로 마을 및 차량 방송을 통해 산불 조심에 대해 안내했으며 입산 통제 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마을 대상 교육 등도 진행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큰 도움이 됐다.

군은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도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산불 취약 지역 중심의 사전 정비와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

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한 해였음에도 우리 군에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군민들의 협조 덕분이다”며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